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1)

함글함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_ 요일 4:7

2013년 5월 19일 주일 제 318호

발행인 : 박원호 | 편집인 : 김학원 |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 02-416-5181~2) | 편집 : 함글함글팀

주님의교회 홈페이지 www.pcltv.org



2013년 어린이 무지개 잔치 너라서 땡큐~, 함께라서 땡큐~, 꿈이라서 땡큐~

모처럼 봄날 다운 봄날씨가 잠실벌을 가득 채웠던 지난 5월 5일, 주님의교회가 깃들어 있는 정신학원 운동장은 어린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어린이날과 주일이 겹친 이날, 열한번 째인 주님의교회 어린이 무지개잔치가 9시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

지 진행되었다.

소예배실에서 즐거운 공연을 보면서 운동장 행사를 기다리던 어린이들은, 곧 얼굴 마다 페이스페인팅을 하고, 나귀가 끄는 마차, 바이킹, 미끄럼틀 등 다양한 놀이를 즐겼다. 떡볶이, 닭강정, 솜사탕과 같은 맛

난 간식들이 어린이들을 반겼으며, 사진팀에서는 궁중 차림의 가족 사진을 제공하여 인기를 끌었다. 한편, 실로암 병원 개안수술 돕기 사랑의 물품 나누기 행사도 함께 열려서, 이날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함글함글〉

쉽고 재미있는 기독교의 역사 6

중세기독교 시작 :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 사건과 수도원 제도의 창시자 성 안토니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바울의 회심사건(행9:1-9)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이다. 그 까닭은 바울의 회심을 통하여 지중해와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바울의 회심사건과 쌍벽을 이루는 회심사건은 아마 밀란(Milan)에서 일어났던 아우구스티누스(St. Augustinus)의 회심일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영혼의 번민에 가득차 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우연히, “집어 읽으라(Telle lege)”는 동네 꼬마들의 노랫소리된 로마서 13장 13~14절의 말씀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인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진정한 회심사건은 유명한 『고백록』(Confessions)에 기록되어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행동을 안토니(St. Anthony)라는 이집트의 은둔 수도사의 신앙행동과 비교하였다.

“나는 내 영혼의 깊은 곳을 성찰하면서 불쌍한 내 영혼의 비밀 때문에 몹시려 찼다. 내 자신에게 솔직히 그 모든 것을 고백했을 때 큰 광풍이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느 새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알리피우스 곁을 떠나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실컷 울기로 했다(중략)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당신의 징벌을 견뎌야 합니까? 우리들의 오랜 죄과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 마음속으로만 ‘언제까지, 내일 내일하면서 미룰 수 있단 말인가? 왜 지금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인가? 왜 지금 당장 나의 악한 죄의 굴레를 끊어버리지 못한단 말인가? 하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서 눈물을 흘리며 이런 질문들을 내 자신에게 묻고 있을 때, 내가 앉아 있던 곳 근처의 집안에서 한 어린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남자 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분명치 않았는데,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 노랫소리에는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라는 말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고개를 들고 혹시 그 아이의 말이 내가 알고 있는 놀이에 나오는 구절인지 생각해 보



305년에 세워진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수도원인 ‘성 안토니 수도원’ (St. Antony's Monastery)은 이집트 수에즈(Suez) 시에서 남쪽으로 80km, 수에즈 만(灣)에서 내륙으로 30km 거리에 있는 수도원으로 성 바오로 수도원(St. Paul's Monastery)과 인접해있다.

았지만, 나로서는 처음 듣는 말이었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선 다음, 내 자신에게 말했다. ‘혹시 이 음성은 내가 가진 성경을 들고 처음 펼친 곳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계시인지 모른다.’ 나는 안토니(Anthony)의 전기를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읽은 구절 중, 그가 어떻게 처음 복음을 실천했는지 기억이 났다. 안토니는 성전에서 “제 집으로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너의 재물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9:21)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안토니는 회개하게 된 것이다. 나는 급히 알리피우스가 앉아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바울의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처음 펼친 곳을 조용히 읽기 시작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13-14). 더 이상 읽을 필요도,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았다. 이 부분을 읽었을 때, 확신의 빛이 내 마음에 차고 넘쳤고 모든 의심의 검은 그림자들은 사라져 버렸다.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제8권]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장면에 등장하는 이 『안토니의 생애』(The Life of Anthony)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 신학자로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자

신의 회심 사건을 기록하면서 안토니(St. Anthony, 251-356)의 회심과 자신의 회심을 비교하였다는 것은 이미 아우구스티누스의 시대에 안토니의 명성이 지중해 연안의 기독교 세계에 널리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렇다면, 이 이집트의 은둔자 안토니는 과연 어떤 인물인가? 그가 도대체 이집트의 사막 한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였기에, 대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을까? 안토니의 삶은 니케아종교회의의 승리자로 널리 알려진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of Alexandria)에 의해 저술된 『안토니의 생애』(Vita Antonii: The Life of St. Anthony)를 통해 알 수 있다. 안토니는 251년 이집트 뽀프스 인근의 작은 마을에서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나이 18세에 안토니의 부모는 많은 유산과 부양할 여동생을 남겨놓고 운명하였다. 그러나 안토니는 어느 날 성전에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9:21)는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은 다음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 은둔 수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안토니는 자기가 살고 있던 마을의 공동묘지에 기도처를 정하고 수도생활에 들어갔다.

안토니는 18세에 뜻을 정하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하고 금욕생활에 들어갔다. 수년 후에 서부 사막 지대로 옮긴 후 20년간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와 금식생활을 지속했다. 이는 전 로마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경건한 신앙인들이 사막과 광야로 모여 들어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과의 기도와 금식을 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수도원을 통해 영적지도자들이 탄생한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로마교회를 정통 속에 안착시키는 아타나시우스가 이러한 수도원의 영향을 받고 성장한다. 그리고 교회에 수도원의 경건을 소개한다. 또한 서부 아시아의 수도원 운동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감바도기아의 바실(St. Basil the Great)을 탄생시켰다. 이 바실에 의해 기도생활과 성경공부, 학문연구, 농업과 의학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유명한 제롬(Jerome)이 수도원을 통해 탄생했다. 이러한 지도자들에 의해 로마교회는 수도원 운동의 경건이 들어오게 되었다. 수도원은 교회가 타락의 길을 걸을 때마다 지도자를 배출하여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정화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강찬 목사>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44회>

그동안 敎會曆(교회력)에 의한 節氣 漢字語(절기 한자어)를 공부했으나 이번 號(호)부터는 신, 구약 성경의 명칭을 위주로 연재하고자 한다.

新, 舊約 聖經(신, 구약 성경)

구약은 모세오경이 핵심이며 “모세의 율법”, “주의 율법”으로도 불렸던 39권의 正經(정경)이다. 신약은 예수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단을 배척하는 사도들 기록 27권의 正經(정경)이다.

성경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랫동안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 살아온 사람들의 체취와 생

활과 문화가 담긴 인류역사상 가장 탁월한 史料(사료)이다.

▣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新(새 신) : “살아있다”는 의미 立(설 립)과 木(나무 목)과 斤(도끼 근)을 합쳐 (살아있는 나무를 도끼로 베면 다시 돋는 것이 새잎이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舊(부엉이 구. 옛 구) : 艸(초. 풀 초. 초두머리)에 “꽂지 짧은 새” 隹(새 추)와 “중간이 잘룩”하게 생긴 臼(절구 구)를 합쳐 (풀썰에 절구처럼 생긴 새 부엉이가 깃들인 것은 옛날부터이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約(묶을 약. 맺을 약) : 糸(실 맥. 실 사)와 勺(작을 작)을 합쳐 (바느질이 끝나면 실 끝에 작은 매듭을 묶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聖(성인 성) : 耳(귀 이)와 畀(나타날 정)을 합쳐 (귀로 남의 말을 잘 듣고 말과 행동을 바르게 나타내 보이는 자가 성인이다)라는 의미가 되었는데 나중에 “거룩하다”는 의미도 추가되었다.

★經(날줄 경. 글 경) : 糸(실 맥. 실 사)와 井(베를 경)을 합쳐 (실을 베를 세로로 걸었으니 날줄이다. 날줄과 씨줄처럼 엮어 만든 문자가 글이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함줄함줄>

“아니메 드롬 코리아(한국에서 왔습니다)”

2013년 주님의교회 성지순례단 은혜 속에 귀국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주님의교회 성도 36명과 교역자가 은혜 안에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살롬?(안녕하십니까?)”, “토다(감사합니다)”,
“에이포 쉼루팀?(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오헤브 오토카(사랑합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주님의교회 2013년 성지순례단 36명과 순례단장 박원호 담임목사, 인솔교역자인 박혜성, 샘 웨딩턴 목사가 성지 순례를 다녀왔다. 이스라엘과 요르단 전역에 걸쳐 10박 11일에 이르는 이번 성지 순례는 성경에 담긴 이스라엘 민족의 이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바울의 전도 여행의 경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직접 체험해보는 좋은 기회였다.

지난 4월 23일 오후 1시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이번

순례여행은 첫날 이스라엘 벵구리온 공항에 도착하여 베들레헴에서 첫날 밤을 보내면서 시작했다. 다음 날부터 베들레헴-탄생교회-브엘세바-와디람-페트라-사해길-암만-예루살렘-갈릴리에 이르는 강행군이였다. 가는 곳마다 오랜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역과 예수님의 자취를 발견하는 은혜가 놀라웠음을 참여한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했다. 짧게 연습한 이스라엘 말들이 입에서 쉽게 나오지는 않았으나, 언어는 다르더라도 성지순례단이 이 순례를 통해 다시 한 번 깨달은 것은 분명히 이 말이었을 것이다. “엘로힘 오헤브 오토카(하나님/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함글함글>

다시 되새겨야 할 성령강림절의 의미

5월 19일은 성령강림절이다. 성령강림절은 전통적인 기독교의 절기인 안식일, 사순절, 부활절, 승천절, 성령강림절, 맥추절, 추수감사, 대강절, 성탄절 중 하나로,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신 날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는 바로 성령강림절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행 2:1-4) 바로 이 날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령강림절이다. 요시아 왕이 오랜 우상 숭배를 종결하고 여호와로 향하는 첫 걸음에 절기의 회복을 명령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뜻을 본받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이라면, 절기의 의미를 기억하고, 성령 강림 후 다른 언어들 통해서 이방인들을 포함한 세상의 낮은 자들을 구원하라는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임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함글함글>

해외선교소식

파이린에서 보낸 편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단기 선교를 위하여, 1년간 시무 장로직을 휴직하고, 지난 2월 서울을 떠나 이곳 캄보디아 파이린에 정착하여 현지 선교사와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곳 파이린은 캄보디아에서도 가장 오지이고, 현지인들도 가기를 꺼려하는 역사적 배경을 가진 곳입니다. 지난 1975년~79년 이곳 캄보디아를 공산화시킨 폴 포트가 당시 800만 인구 중 200만 명을 지식인이라는 이유로 대량 학살한 끔찍한 비극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들이 베트남과의 전쟁에 패하고 쫓겨 태국과의 국경지대인 이곳 파이린에 정착하고, 현 캄보디아 정부와 정전협정을 맺고, 자기들만의 자치구로 독립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윤구형 선교사 부부가 2000년 한국인 최초의 선교사로 와서 13년간 묵묵히 선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교회 35곳, 고아원 1곳, 학교 4곳을 설립하여 지원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는 2000년도에 인연을 맺어 약 5년간 공식적으로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온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개인적으로 윤 선교사와의 오랜 인연으로 선교활동을 도와 드리는 일입니다. 현재 윤 선교사는 새로운 선교센터를 짓고 계십니다. 땅 5,000평에 2층 건물과 부속 건물로 기도처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숙형 신학교와 교회를 운영하면서, 이 곳 청년들을 도제식 제자양성과정을 통하여 현지 교회의 지도자로 키우고자 합니다.

둘째, 우리 교회의 대외선교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현지의 다양한 선교 형태를 직접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외 선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하는 좋은 견문을 쌓았습니다. 이곳에는 크게 병원(프놈펜의 헤브론 병원), 선교센터(프놈펜의 명성교회 종합선교센터 및 광명교회), 신학교(바탐방 신학대학, 기타 직업학교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교회에서 현지 교회 건물을 지원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에 적합한 선교형태가 어떤 것인지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 그 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장일형 장로>

청년부 다채로운 봄맞이 활동



4월 28일 봄나들이를 함께 한 청년 2,3부.

2013년 봄을 맞이하여 청년부에서는 3~4월에 걸쳐 지체들의 신앙의 성장과 공동체성 함양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예비리더교육 LETS 6기 훈련이 8주간 진행되었다. 그 동안 180여명의 청년들이 LETS 훈련에 동참했으며, 6기에서는 17명의 청년들이 수료했다. 4월 28일(주일)에는 각 부서별 모임을 진행했다. 청년 1부는 교회 식당에서 요리대회를 통해 식탁공동체로 어우러지는 시간을 가졌고, 청년2-3부는 경기도 미사리에 가서 레크레이션, 체육활동을 활동을 통해 친목을 도모했다. 4월 29일(월)~5월 3일(금)까지는 청년부 특별새벽기도회를 가졌다. <김삼열 전도사>

로템나무

▶ ‘로템나무’ 는 일상에서 만난 신앙의 체험과 은혜의 기억을 칼럼 형식의 글로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많은 투고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이 이렇게 따스한 줄 몰랐다

저는 정신여고 교사입니다. 작년에 1학년 담임을 맡았었습니다. 제 반에는 중학교 때부터 학교 부적응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올라와 1년 내내 수많은 무단결결과 무단결석을 하던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1년을 잘 마쳤고, 올해 2학년이 되었습니다. 늘 걱정되는 아이라서 카스(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잘 지내는지 근황을 항상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머니 수업을 했다면 글과 사진을 올렸더군요.

“어머니라는 이름이 이렇게 따스한 줄 몰랐다... 집에 있는, 나를 낳아준 그분을 어머니라고 불러본지도 오래 되었는데... 어머니라는 이름은 늘 낮설고 차갑

기만 했는데... 처음으로 따스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 글을 읽고 눈물이 핑 돌 만큼 하나님께 감사했고, 어머니 멘토 여러분들에게도 깊이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정신여고 교사 김라경>



알림

(사)섬김과나눔 봉사활동, 회원가입, 후원신청을 접수합니다.

‘섬김과나눔’에서는 지역사회 복지와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 회원, 후원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섬김과나눔’은 주님의교회가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 늘푸른대학, 무료급식, 족배달, 특별 구제, 어린이집 위탁 운영 등을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더 뜻 깊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을 위해 직접 참여하시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더 많은 회원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섬김과나눔’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거나 후원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난 5월 12일 배포한 홍보 팸플렛과, 섬김과나눔 홈페이지 www.seomgimi.com를 참고하시면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12일 주일 홍보캠페인에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만, 혹시 이날 이 귀한 기회를 놓치신 분은 언제라도 ‘섬김과나눔’ 사무국(02-415-5113)이나 각 사업팀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교회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기원합니다.

상담코너 <세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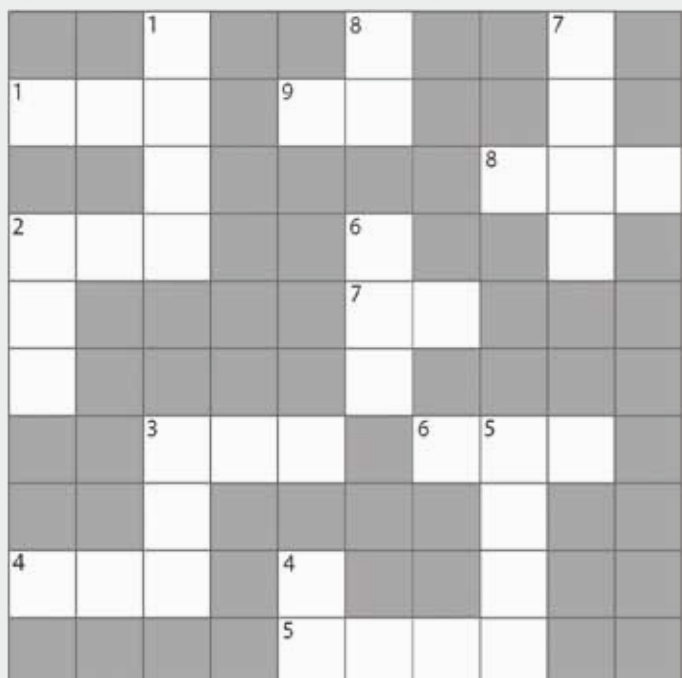
자식이 장성해서 혼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이라도 장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군요. 혹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동산(주택)을 매매하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내어야 하는 것 인지요?

말씀하신 경우는, 증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혼치는 않지만 부자지간에도 부동산(주택)을 매매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란 대가관계(유상)에 있는 매매대금이 오고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비해 ‘증여’란 공짜로 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돈이 오고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매매대금이 오고간 사실이 있다면 증여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로 취급받지 않으려면 매수자(아들)가 먼저 자기의 자금으로 샀다는 것과, 매매대금이 실제로 오고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은행에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것도 자기의 자금에 포함됩니다.

매매대금이 오고간 사실에 대한 입증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통장거래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매수자(아들)가 자기의 돈으로 은행 대출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아울러 입증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평소 온라인을 통한 은행거래를 생활화하여, 은행거래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무사 김정식>

▶ ‘상담코너’는 성도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 궁금한 문제들에 대하여 교회 내 전문가들의 상담을 통해 답과 지혜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신앙과 가정, 의학, 법률, 세무 회계 등 여러 분야에서 부딪치는 문제점들을 hamletter@hanmail.net으로 보내 주세요. 전문가의 조언을 올려 드립니다. <함글함글>

말씀따라 가로세로 - 사사기, 룯기편



- <가로>** 1. 메소보다미아왕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최초의 사사
2. 레위인과 그의 첩 사건으로 온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 맞서 모인 장소
3. 삼손의 부모가 대면했던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
4. 여호수아가 죽은 유다 지파가 가나안과 싸울 때 함께 싸운 지파
5. 룯의 시아버지
6. 룯에게 은혜를 베풀고 결혼하게 되는 사람
7. 룯의 아들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됨
8. 삼손이 사사로 활동하던 때에 이스라엘이 대항했던 족속
9. 레위인과 그의 첩 사건으로 온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 맞서 싸울 때 제일 먼저 싸우려 나간 지파
- <세로>** 1. 이스라엘 전 지역은 ‘단’에서 ‘OOOO’까지
2. 이스라엘의 토지소산과 가축을 모두 빼앗아 이스라엘을 궁핍하게 만든 족속
3. 양털뭉치로 표적을 구했던 사람
4. 쫓겨 가던 가나안왕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속여 죽인 사람
5. 형제 칠십명을 죽인 악행을 저질렀던 기드온의 아들
6. 타지에서 아들들을 잃고 며느리 룯과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
7. 룯이 시어머니와 함께 모압을 떠나 도착한 곳
8. 그릇된 서원으로 딸을 제물로 드린 사람

<지난호 정답> - 가로 1.아골골짜기 2.세겔 3.제비뽑기 4.시므온 5.여리고성 6.게데스 7.라합 8.양각나팔
- 세로 1.아간 2.기랴세벨 3.화제물 4.기브온 5.므낏세 6.도피성 7.라기스 8.막게다굴 9.만나

아버이, 그들은 우리에게 누구인가?

아버이 주일 맞아 돌아본 주님의교회 어르신들의 나날

지난 5월 8일은 아버지날. 교회에서는 12일을 아버지주일로 지켰다. 늘푸른대학에서는 7일 세족식을 가졌고, 12일 주일에는 교회의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일흔이 넘으신 어르신들에게는 선물도 드렸다. 그것으로 우리는 할 일을 다한 것일까? 아버지, 그들은 우리에게 누구인가? 교회에서 몇몇 어르신들의 삶을 '왓담으로' 여쭙어 보았다.



아버이의 지나간 시간 어디에 기대어 우리가 성장하여 오늘을 이룬 것일터, 그이의 굽은 허리와 고단한 무릎이 오늘 따라 눈에 밟힌다.

지금 막 설만한물가에 들어서신 78세 어르신

교회 창립 초기부터 다녔다. 주님의교회가 4주년이 되던 해에 권사가 되었다가, 4년 전에 퇴임했다. 서울 근교 도시에서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교회에 오신다. 금요일에는 특히 안나 구역 예배를 꼬박 꼬박 잊지 않고 참석해서 드리고 있다. 효심이 깊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교회를 같이 다니지는 않는다. 자녀들이 다른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이다. 교회에 오면 설만한 물가에서 아는 얼굴들을 만나 이야기 하는 것이 즐

겁다. 교회에 어르신들을 위한 방이나 공간이 부족한 건 알지만, 익숙해져서 불만은 없다.

다리가 불편해서 지팡이를 짚으신 어르신

교회와 가까운 곳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혼자 거동하기가 쉽지는 않다.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한다. 딸과 사위와 함께 교회에 온다. 교회에는 창립 초기부터 다녔다. 딸이 권사이고 봉사를 많이 하는 편이다. 요즘은 성가대를 하고 있다. 설만한 물가에서 아는 얼굴들을 만나 얘기하는 것이 즐겁다. 계단을 오르기 어렵기 때문에, 예배당에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서 내려서 가야 한다. 주일에는 따로 그 엘리베이터가 좀 멀다.

지하철을 애용하시는 '젊은' 어르신

31년 생이니 우리 나이로 여든 셋이지만 걸 모습만으로는 그 연세로 보이지 않는다. 교회 출석한 지도 무척 오래 되었다. 올 때는 버스로 오고, 갈 때는 지하철을 갈아타고 간다. "몸이 움직일 힘이 있으니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다니는 거야." 라는 말씀과 함께 정정한 눈빛이 돋보인다. 어르신 공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에 현재로 족하다는 대답. 자녀들로부터 아주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 작은 교회에 다닌다면 가족적이어서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겠지만 굳이 그러고 싶지는 않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여서 그런지, 한 공간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없고, 가족적인 정감도 없는 것 같다. 교회 생활은 즐겁다. 주일에도 만나고, 겨자씨모임에서도 만나고, 늘푸른대학에서도 만나는 오래된 교



주름 잡힌 손이 오히려 참 곱다. 마다하시는 것을 강권해서 사진을 찍었다.

회 식구들과의 만남이 참 즐겁다.

외국어 공부를 하고 계시던 신식 어르신

뒤늦게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 원래 음악을 전공해서 음악 교사를 했고, 성가대도 오래 했다. 늘푸른대학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참 즐겁다.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오긴 하지만, 오면 따로 따로 자기 할 일 들을 한다. 할 일 없이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으냐고? 아니다. 중년의 부부들이 설만한 물가에서 나누는 얘기들을 듣는 것도 즐겁고, 조용해 지면 외국어 책을 들여다 보는 것도 즐겁다. 젊은 청년들이 활발하게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즐겁다. 젊은이들의 환한 얼굴을 바라보면, 나도 젊어지는 것 같다. 그러다보면 시간이 지나서 집에 가고 온다. 혼자 움직일 수 있는 한, 교회에 와서 이 기쁨을 누릴 것이다. <함울함울>

늘푸른대학 세족식, 어르신도, 봉사자도 함께 울었다



늘푸른대학에서는 아버지날 기념행사로 스태프와 교역자들이 마음을 모아, 어르신들의 발을 씻어 드리는 세족식을 가졌다.

늘푸른대학에서는 5월 7일(화) 11시 아버지날을 맞이하여 어르신 140분을 모시고 아버지날 기념행사로 주님이 몸소 행하신 세족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처음에 스태프들은 세족식 계획(안)을 앞에 놓고 이 행사가 주님이 계명으로 주신 "네 아버이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가슴속

에 깊이 새겨볼 수 있는 뜻 깊은 일이어만 "이 행사를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은데.." 하면서 두려움이 앞섰고 또한 자신감이 없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인도하심을 깨닫게 해주셨고 스태프들은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 은혜로운 세족식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세족식 행사에는 주님의교회 목사 10분과 장로, 권사, 3·4·5·6 여전도회 회원님과 늘푸른대학 스태프와 교회 여러 직원들의 많은 60여분이 넘는 도움의 손길이 참여하였다.

특히 이번 늘푸른대학 세족식 행사는 세족식에 참여하신 어르신은 물론 세족을 담당해 주신 봉사자도 함께 울고 서로 기도하고 포옹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가장 은혜롭고 감동적인 현장이었다.

금년 아버지날 기념 늘푸른대학 세족식 행사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같이 나누는 어르신들은 '마치 주님이

직접오셔서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같아 마치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다.' 하시며, 참여하신 목사님과 교우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

<정의영 늘푸른대학 행정팀장>



세족식 진행 중, 어르신과 봉사자가 은혜 가운데 함께 눈물을 흘리는 감동적인 순간을 맞기도 했다.

부르심의 길에 서서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슬래잡기 고무줄 놀이 말뚝박기 망까지 말타기 놀다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라는 노래가사처럼 저는 저 멀리 강원도 두메산골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깊은 시골 분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며 가르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주중에는 아이들에게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교사로 주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교사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읍내에서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내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저녁때 해가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며 논두렁 가운데 길을 지나가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아내와 이야기하며 퇴근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늘 기대하고 소망하며 꿈꿔왔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그 강촌에 누가 오려고 하겠는가?’ ‘그리고 저 시골아이들에게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누구도 잘 하려하지 않으려는 일을 하고자하는 나는 나를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우쭐해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선한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건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기도하며 원하는 대학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이내 우선은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학에 진학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나의 꿈을 저버릴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학을 다니며 다시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준비했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나를 점수도 잘나왔고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다시

시험을 치렀고 기대하며 결과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저번과 똑같았습니다. 도저히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빼돌려 질 것이라고 헐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망하고 방황하는 저에게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부서의 전도사님께서 조용히 저를 부르시며 “제가 우리 홍 선생님을 지켜보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홍 선생님께서 주의 일을 하시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시골의 교사도 주의 거룩한 일이라 생각했기에 그럴리는 없다고 전도사님께 말씀드렸지만 웬지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이러한 내용을 어머니와 이야기 나누게 되었고 뜻밖에 어머니께서는 저를 두고 하나님께 서원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의 꿈이 너무 단호했고 기대하고 소망했기에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생각보지 않은 일이었기에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늦게라도 다시 돌아와 목회하는 사람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는 것과 내년에 다시 도전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같을 것이라 생각하니 억지로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기쁘지 않았지만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잠언 14:8,9의 말씀을 주시며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며 부르심에 억지로라도 순종한 저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가끔 중학교나 고등학교때 친구들을 만나면 목사인 저를 보며 ‘야~ 성육이 네가 목사라니 말세(?)가 다 되었구나~’ 라며 잘 놀던 저를 기억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없이 부족한 저도 주의 거룩한 일에 사용하시니 이제는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홍성욱 목사>

주님의교회 카툰



교회 사역 일정

- 5.19(주) 성령강림주일, 청년주일
- 5.31(금) 양육클래스 종강

당회 소식 <5월 의결 사항>

- 주님의교회(갑)와 유토피아 추모관(을)이 협약서 내용대로 협약을 체결하기로 하다.

■ 교회단신

제1 여전도회 봄 나들이



5월 8일 제1여전도회 30여 회원은 맑고 화창한 봄날씨 가운데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산자락에 위치한 마니커 공장 및 박물관과, 자유수호 평화박물관을 다녀왔다. 마니커 박물관에서는 닭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를 관람했고, 자유수호 박물관에서는 6.25 기록물들을 보면서 평화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등, 화기애애하고 유익한 나들이였다. <함울함울>

섬김과 나눔, 가정의 달 독거 어르신들에게 선물 증정



5월 6일 사단법인 섬김과나눔에서는 거여동, 마천동 독거 노인들을 위해 죽과 선물을 나누어 드렸다. 안수집사회에서 마련한 선물을 포함, 집에서 임기 편한 옷, 김치 한 박스를 죽과 함께 일일이 찾아 뵙고 손을 잡는 봉사자들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함울함울>

날아올라! 청소년부 연합예배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지만, 한편 주님의교회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의 날’ 이었다. 이날 청소년들은 지하 중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렸다. 이어서 F.L 워쉽팀과 이철규(헤리티지 전보컬)와 함께 찬양하며 춤추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함울함울>